

해남역 개통...기차 타고 '땅끝 해남' 관광 즐긴다

해남군이 해남역 개통을 계기로 철도와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을 본격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KTX와 관광전용 열차(남도해양관광열차 등)를 활용한 수도권 출발 상품과 경상·부산권 출발 관광 전용 열차 상품 등 총 5종의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주요 여행 상품으로는 프리미엄 해남 프라이빗 여행, 대흥사 템플스테이 힐링 여행,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불린투어, 전통주 체험 '술레 열차', 김장 체험 열차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중 '대흥사 템플스테이 힐링여행'과

군,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약...기차여행 관광상품 출시 12일부터 템플스테이·전통주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전통주 체험 술레열차' 상품은 현재 출시된 상태이며,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특히 '대흥사 템플스테이 힐링여행' 상품은 출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기차여행 상품 운영으로, 해남의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 대흥사 템플스테이, 대흥사 전통주 체험, 대흥사 김장 체험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상권과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여행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여행몰 누리집 또는 전화(1544-7755)를 통해 예약·문의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 해남역이 개통함에 따라(코레일관광개발과) '해남군 철도 연계 관광상품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해남역'을 활용한 기차여행 상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를 기반으로 한



해남군이 해남역 개통을 계기로 철도와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을 본격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제공=해남군청

새로운 관광모델 구축을 통해 해남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출시했다.

이번 사업은 해남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

이 있다. 특히 지역 관광업체와 협력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 접근성 개선과 체류형 관광객 증가, 지역 특산물 소비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철도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로 해남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머무르는 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성장에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233@gwangnam.co.kr

'벚꽃과 함께 찾아온 봄' 영암 왕인문화축제 개막

마당극·인문학 강연·공연 등 참여형 콘텐츠 풍성

영암군 대표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왕인문화축제가 최근 개막해 벚꽃이 흐드러진 왕인박사유적지를 사람과 야기로 가득 채우며 봄의 문을 열었다.

축제의 시작은 전국 3500여명이 참가한 벚꽃마라톤대회였다. 참가자들은 흠날리는 벚꽃길을 따라 달리며 영암의 봄을 온몸으로 느꼈고, 행사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방문객들로 활기를 더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왕인박사의 정신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왕인박사 마당극, 인

문학 강연, 거리공연 '리듬과 숨결', 예술 퍼포먼스 '황해자의 지도' 등 전문화와 공연, 참여형 콘텐츠가 어우러지며 관람을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프로바둑기사와 승부'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해가 지고 밤하늘 아래 펼쳐진 낙화 콘서트는 흠날리는 불꽃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에게 봄밤의 특별한 기억을 남겼다. 왕인문화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상대포 낙화유수

지난 5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티니핑 심어봄'을 비롯해 11일과 12일에는 왕인박사 테마 퍼레이드와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야간에는 드론 라이트쇼와 상대포 판타지, 구림의 밤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재규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왕인문화축제는 봄의 정취 속에서 문화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며 "많은 분들이 영암에서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진도, 중동 상황 '비상경제대책 TF' 가동

민생 물가·에너지·농수산 등 분야별 선제 대응

진도군은 중동 지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 대응반(TF)'을 가동하고 있다.

진도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경제·에너지 수급, 수출 지원, 농수산업 대응, 교통물류 안정, 종량제봉투 수급, 건설자재 수급, 도서 지역 운송지원 등 총 7개 분야의 대응반을 구성해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경제, 에너지 수급반'은 '공공요금 동결 유지' 등 민생 물가 안정·관리와 함께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주유소 품질과 유통 점검, 석유류 사재기(매점매석)

행위 점검 등을 추진한다.

'수출 지원 대응반'은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수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수산업 대응반'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안정을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지원 검토, 농어업 기자재 수급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교통물류반'은 점검반을 운영하고 관광(모니터링)을 통해 여행객물류업계의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강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강진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안정 보전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4월까지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6월까지 농지소재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 비를 신규로 재배하려는 경우 8

~9월에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기간(2025년 11월 1일~2026년 10월 31일) 동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농·임업인 및 법인이며, 지원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30ha까지다. 무농약은 3년(3회), 유기농은 5년(5회) 인증단계를 품목별 지급단가는 ha당 유기농은 95만~140만원, 무농약은 75만~120만원으로 지급된다. 또 저농약 지급 이력은 제외해 친환경 인증 농가의 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

초대석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초대석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이달의 CEO



정태영 스몰액션 대표
페어링, 가방으로 재탄생
해양쓰레기 자원 순환

화제의 인물



오금석 (주)아생인더비 대표
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싱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포커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동 리스크 직격탄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